

신농약 대체로 金額은 증대 量은 정체

年平均
2자리수 成長率
기대는
어려운 실정

본 자료는 日本化學工業日報('86. 9. 14字)에서 발췌한 것으로 일본화학공업일보사는 창립 50주년 기념 제1특집에서 “화학공업의 주요업종에 대한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이중 농약공업분야에 관한 사항은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 번역 소개한다 <편집자註>

농촌진흥청
농약연구소 提供

전체적으로는 저성장시대

농약공업은 현재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농약의 출하는 최근 수년간 「수량은 제자리 걸음, 금액은 안정적 成長」이라는 基調에서 시종하고 있다.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등 어느것이나 그해 지역에 따른 기상이나 병해충 발생상황에 따라 사용량에 굴곡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일정한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1회용 제초제 선풍적 인기

그들이 구성하는 개개 농약의 내용면에서는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가장 현저한 것은 수도용 1회제초제의 급성장과 이에 따른 초기제, 중기제의 쇠퇴이다. 종래 2회 살포가 필요하던 것이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과 같이 1회살포로서 끝나는 생력효과가 2년에 2배 신장하는 히트(hit)의 요인이 된 것이다.

高價의 신농약으로 점차 대체

발작물용 제초제, 살충제, 살균제등에서도 새로운 작용기작을 가지는 것, 소량살포를 실현한 것등 유력한 신규 농약이 점진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수량은 제

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4~5% 신장하고 있는 것은 기존농약이 이들 고가의 신규 농약으로 대체되어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어려움 증대되는 농약공업환경

그런데 농약의 유용성이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작업의 생력화에 있다는 것은 말할것도 없으나 산업으로서 농약공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한층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다.

2자리수 성장율기대 어렵고 5년간 가격동결로 채산악화

첫째, 수요의 정체경향이다. 고가의 농약으로 대체가 진행되고하나 시장규모가 두자리 수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는 것과 같은 상황은 상상할 수 없다. 한편 가격은 최근 5년간 거의 동결되어 제조각사의 채산은 어려움을 증가시키고 있다. 賣商高總利益率, 損益分岐點등의 지표는 매년 악화되어 연구개발비의 비중저하의 경향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개발 계속위한 위험부담에 한계

두번째는 위에서 말한 신농약 개발비를 충당하는 문제이다.

안전성 문제에 관한 규제강화, 농업구조 변화에 따른 농약의 기능에 대한 새로운 정보의 발생등 농약개발의 과제는 다방면에서 더욱 더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런데 신농약개발에는 일반적으로 8~10년의 기간과 적어도 30억~40억엔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수익성이 저하하는 중에서 각 제조회사가 어디까지 위험부담을 안고 개발을 계속할 수 있을까? 세계의 주요 농약제조회사는 모두 구미의 대화학기업인데 대하여 기업규모가 다른 일본의 제조회사가 어디까지 유지해 나갈까 주목된다.

현재 일본농약원제의 海外依存度는 60~70%라고 하고 있으나 여기에 더하여 外資系 企業이 對日 攻勢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업계각사가 어떻게 체질을 강화하여 돌파구를 찾아나갈 수 있을까? 더군다나 R&D없이 사업확대는 있을 수 없다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엔화상승으로 對美수출 지장

더우기 근래의 문제로서 현재 대두되고 있는것은 円高對策 이다. 국내시장세가 호전되지 않는 것과 함께 최근 수년간 해외지향

성이 강하여 특히 목화, 콩등의 미국시장을 겨냥한 농약이 무척 성과가 좋았으나 1985年 후반부터 低달러, 円高의 환율동향이 수출지향 제조회사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고 있다.

시장개척위한 신농약대체가 특징

유통체계의 단순화, 안전성 문제에 따른 세론에 대한 대응과 안전사용의 계몽등 업계공통의 과제를 한편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R&D에 한층 더 경주하므로서 차별화의 촉진에 각사가 여러 가지 형태로 경쟁하고 있다. 세계에서 4조엔, 일본국내 4천억엔이라는 시장규모가 급속하게 팽창할 요인이 없다고 하여 항상 신규농약으로 대체가 반복되고 있는 점이 농약공업의 특징이다. 여러가지 과제를 갖고 있으면서 다시 신규 참여의 움직임이 있는 理由도 여기에 있다. 생물공학(Biotechnology)을 포함하여 농약생산성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농약의 유용성이 배제될 수 없다. 장기적 관점을 잃지않고 개개과제에 확실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농약공업과 관계하는 각사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겠다.

주) R&D : 연구 및 개발